화장품

Mar 6 2026

올리브영으로 본 외국인 K-뷰티 소비 구조 변화

Overweight 유지

한국은 지금 인바운드 증가 국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YoY 15%)을 기록. 최근 일본-중국 갈등 확대에 따른 방한 중국인 증가 등 한국 관광 수요를 높이는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 중. 이러한 가운데 정부 역시 2월 25일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2,300만명, 2029년 3,000만명을 목표로 제시하며 인바운드 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임.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 품목 1위가 화장품(68.3%)인 만큼,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화장품 수혜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2025년 올리브영의 외국인 구매 금액은 1조원 이상(YoY 53%)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소비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외국인 K-뷰티 소비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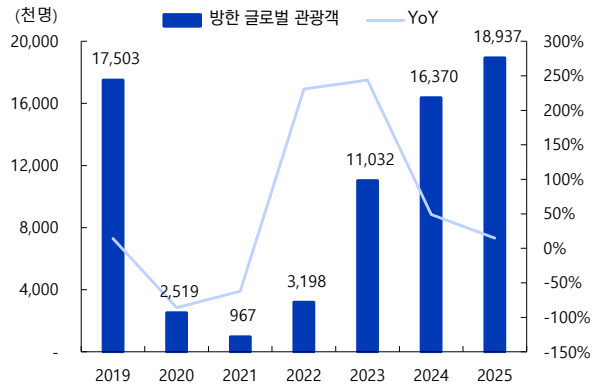
올리브영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들의 화장품 소비에서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포착됨. 첫째, 구매 브랜드 수의 빠른 확대임. 10개 이상의 K-뷰티 브랜드를 구매하는 외국인 수는 2019년 7.7만명 → 2025년 146만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비중 역시 2019년 10% → 2025년 33%로 증가함. 반면, 3개 이하 브랜드 구매자 비중은 2019년 38% → 2025년 25%로 감소함 과거 소수의 대표 브랜드에 집중되던 구매가, 이제는 다수의 인디 브랜드로 분산 확대되는 있는 것으로, 이는 K-뷰티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신뢰와 탐색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둘째, 구매 카테고리의 다양화임. 올리브영의 6개 카테고리 (기초/색조/퍼스널케어/헬시푸드/헬시라이프/라이프스타일) 기준으로, 4개 이상 카테고리를 조합하는 성장률(4개 +79%, 5개 +86%, 6개 +84%)이 3개 이하 조합(1개 +45%, 2개 +50%, 3개 +57%)을 크게 상회했음. 특히, 기초+색조+퍼스널케어 조합 구매가 YoY 14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 올리브영 글로벌몰 기준으로도 2개 이상 카테고리 구매자 수(YoY +59%)가 1개 카테고리 구매자 수(YoY +45%)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스킨케어 기기 구매자의 76%가 에센스를 함께 구매하는 등 카테고리 간 연계 구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시사점

인바운드 증가만으로 내수 화장품 시장 전체를 폭발적으로 견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국내 시장에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점 긍정적. 다만, 더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의 질적 변화임. 소수의 대표 브랜드에 집중되던 구매가 다수의 브랜드로 분산되고, 스킨케어 중심에서 색조/퍼스널케어 등 복합 카테고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K-뷰티가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함. 여기에 구매 채널도 H&B스토어에서 약국 등으로 채널 확장도 긍정적임. K-뷰티의 브랜드 확장, 카테고리 확장, 구매 채널 확장 등을 통해 지속 성장 기대. 실제로 부츠, 얼타 등 글로벌 주요 리테일러들도 K-스킨케어 외에도, K-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수 등으로 적극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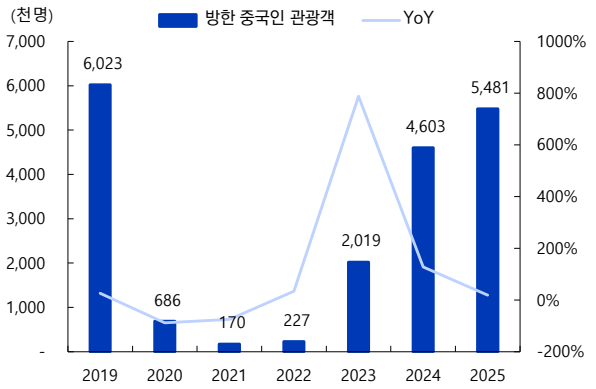
[음식료/화장품] 권우정
3771-9082,
20240006@iprovest.com

[도표 1] 방한 글로벌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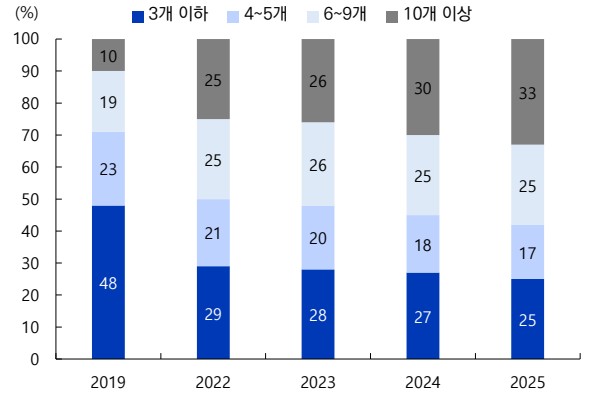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방한 중국인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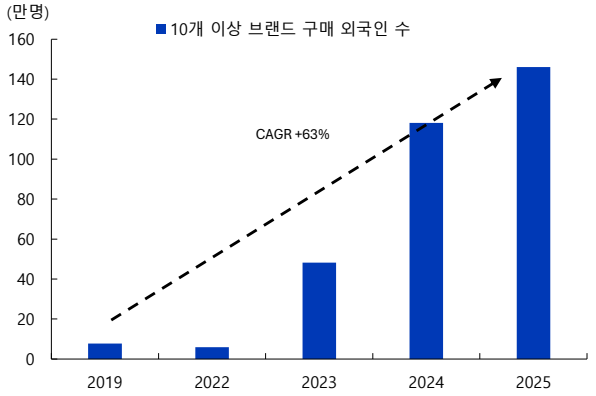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이용 브랜드 개수 별 외국인 고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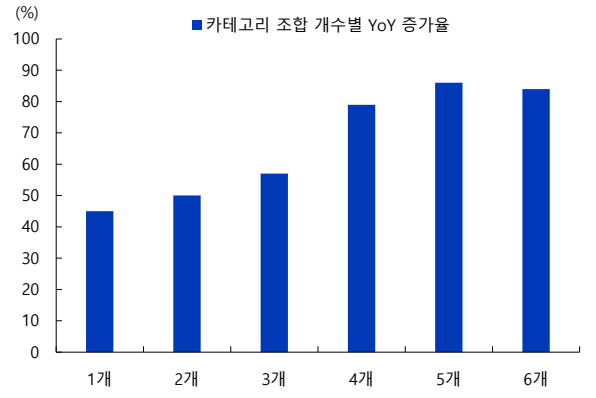
자료: 올리브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10 개 이상 브랜드 구매 외국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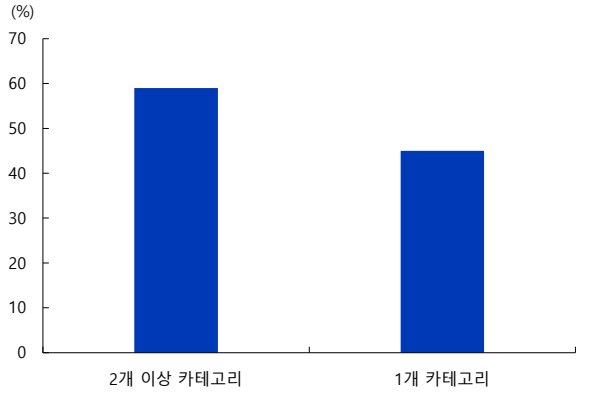
자료: 올리브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카테고리 조합 개수별 YoY 증가율



자료: 올리브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구매 카테고리별 고객 수 YoY



자료: 올리브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기준일자_2025.12.31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6.4%	2.9%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